

# 하쓰세 참배의 종교적 의미\*

- 『가게로일기』를 중심으로 -

히영은\*\*

旅行は日常からの逸脱を意味する。文学の場合、旅行は作家の創作意欲を掻立てる役割をする。『蜻蛉日記』の作者道綱母は2回の初瀬詣での他に、唐崎庇い、石山詣で、鳴瀧籠りなど、かなりの物詣でをしている。彼女は物詣でから新しいエネルギーを充足して帰ってくる。本稿では、彼女が2回も参拝している初瀬の持っている宗教的イメージ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

初瀬は万葉の時代から'こもりくの初瀬'といって、洞窟のように窪んだ姿から母体の象徴として人々に認識されてきた。また、初瀬川は激流のため、力強い生命力を象徴していた。其れ故、初瀬は観音の霊地として古くから人々の篤い信仰を集めてい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参拝地は'他界'と認識され、参拝行為は'架空の死'からの帰還に擬せられた。また『蜻蛉日記』の初瀬詣でに登場する'宇治'と'椿市'は聖所である参拝地と人の世を繋ぐ'結界'であった。物詣ではこのように道綱母にとって、再生の機会であったが、2回目の初瀬詣で以来、彼女はもうそれ以上物詣でに出なくなる。日記中巻の末尾にある'思ひかへる'の歌の意味するように、道綱母は兼家の不誠実さに懲り、もはや兼家に夫としての期待を捨てたからである。

キーワード：観音信仰、結界、他界、再生、あまがえる  
(관음신앙, 결계, 타계, 재생, 청개구리)

## 1. 머리말

여행은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한다. 문학 속에서 여행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창으로 작가의 창작의욕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로부터 단절된 여성의 경우 더욱 현저한데, 여성 작가에게 있어 여행이란 남성 중심사회의 억압에 대한 항의와 억눌렸던 욕망의 분출구로서 작용한다. 집이라는 일상적

\* 본 논문은 2011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함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인 공간을 떠난 여행길에서 작가는 주변의 새로운 풍물과 자연을 관찰하며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자아에 대해 눈뜨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있어 여행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카무레 이쓰에(高群逸枝)의 술회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는 생활에 지치거나 모든 것에 확신을 잃었을 때에는 언제나 순례(遍路)를 떠날 생각을 한다. 순례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 그 경건한 순례길-산 넘고 들 건너 끝도 없이 이어지는 길-그곳을 나는 터덜터덜 걷는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걷는다.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불행해도 그 길을 걷는 동안에는 마음먹기에 따라 대부분 치유가 되는 기분이 든다. 불행한 사람은 순례를 떠나길.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권하고 싶다.<sup>1)</sup>

다카무레는 『초서혼(招婿婿婚)의 연구』로 대표되는 일본 혼인사 연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시코쿠순례<sup>2)</sup>를 통해 『아가씨 순례기(娘巡禮記)』(九州日日新聞), 『오헨로(お遍路)』와 같은 여행기를 남기기도 했다. 그녀는 24세가 되던 1918년 도보로 50일에 걸친 순례길에 나선 이유는 남편과의 불화, 『모계제연구』 집필로 인한 심신의 피로로 엄청난 정신적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옥과도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순례에 나서는데, 그녀는 여행길에서 나환자나 거지와 같은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순례를 통해 오히려 도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된다.

헤이안(平安)시대 무라사키시키키부(紫式部)나 이즈미시키키부(和泉式部), 아카조메에문(赤染衛門)과 같은 여류작가들도 절이나 신사를 참배하고 느낀 풍경이나 감회를 작품 속에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참배의 체험이 작가의 내면으로 체화되어 작품 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작품으로는 『가게로일기(蜻蛉日記)』와 『사라시나일

1) 高群逸枝(1939) 『遍路と人生』(星野英紀(1981) 『巡礼一聖と俗の現象学』講談社、p.12. 재인용)

2) 四国遍路는 시코쿠에 空海와 관련이 있는 88개 사찰을 순례하는 것을 말한다. 江戸時代 西国三十三所観音霊場、熊野詣、善光寺参りと 같은 순례가 성행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특히 四国88箇所 사찰을 도는 것을 遍路라 하고, 순례자를 'お遍路さん'이라 부른다.

기(更科日記)』를 들 수 있다. 『사라시나일기』의 경우는 일기 서두부터 여행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되어 이시야마참배(石山詣で), 하쓰세참배(初瀬詣で), 구라마참배(鞍馬參籠), 우즈마사참배(太秦參籠)와 같은 참배여행의 기록이 전체의 5분의 1을 점하고 있다. 『사라시나일기』의 작가 다카스에노무스메(孝標娘)는 『가게로일기』의 작가 미치쓰나노하하(道綱母)보다 더 많은 여행을 했고, 더 많은 여행의 기록을 자신의 일기에 담고 있다. 그녀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 생활에서 도피해 이시야마, 하쓰세와 같은 관음성지에서 충족되지 않는 현세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라시나일기』도 여행을 통한 체험이 작품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것은 그녀의 구복신앙에 기인한 종교적 체험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미치쓰나노하하의 경우에는 참배여행의 계기가 남편 가네이에(家兼)와의 불화로 인한 도피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미치쓰나노하하의 여행은 앞서 언급한 다카무레의 시코쿠 순례와 닮아 있다고 하겠다.

『겐지이야기(源氏物語)』를 비롯한 많은 헤이안 작품이 인물의 내면세계를 충실하게 파헤친 자조성 풍부한 문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게로일기』와 같은 일기문학에 힘입은 바 크다. 미치쓰나노하하나 다카스에노무스메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관조한 일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참배여행을 통해 자연에 자신을 투영시켜 깊은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기작품에 수록된 참배여행의 의미를 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미치쓰나노하하는 두 번의 하쓰세참배를 비롯해 가라사키불제(唐崎被い), 이시야마참배, 나루타키참배(鳴滝籠り)와 같은 경험을 일기에 기술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가게로일기』 참배여행에서 주목하는 것은 나루타키참배와 이시야마참배이다. 우에무라 에츠코(上村悦子)나 모리야 쇼고(守屋省吾) 등은 『가게로일기』 집필시점과 관련하여 작가의 고양된 감정이 가장 집약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나루타키참배가 작품의 클라이맥스이며 집필시점이기도 하다고 그 중요성을 지적한다.<sup>3)</sup> 한편 미타무라 마사코(三田村雅子)는 『가게

3) 上村悦子(1972) 『蜻蛉日記の研究』 明治書院、pp.120-143、守屋省吾(1975) 『蜻

로일기』 참배여행의 의미를 주변 자연경관에 대한 묘사와 작가의 심리 변화에 초점을 맞춰 참배여행이 미치쓰나노하하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정점이 이시아마참배였다고 하고 있다.<sup>4)</sup> 나루타키칩거나 이시아마참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한 하쓰세 참배에 대한 논도 있는데, 하라다 요시키(原田芳起)는 하쓰세 참배를 전후해 미치쓰나노하하의 심경이 매우 온화해지고 명징해졌음을 노래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있고, 고지마 나오코(小嶋菜温子)는 하쓰세참배 기술에서의 '잉어'와 '뽕'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하쓰세참배가 여자아이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5)</sup> 그 외에 『가게로일기』 참배여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행에서의 자연이 작가의 심리와 조화를 이루어 자기 성찰적인 깊은 관조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sup>6)</sup>

『가게로일기』가 감성과 조화된 탁월한 자연묘사로 자조성 풍부한 문학작품으로 완성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게로일기』에 묘사된 여러 참배여행에서 자연묘사에 담긴 많은 종교적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미치쓰나노하하가 가네이에를 체념하게 된 계기로 보통 나루타키칩거를 든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째 하쓰세참배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가네이에의 애정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가네이에의 아내로서의 지위를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가게로일기』 상, 중권에 묘사된 두 번의 하쓰세 참배여행이 어떤 종교적 의미를 지니는지, 또 두 번째 하쓰세 참배여행 이후 더 이상 참배여행에 대한 기술이 사라진 연유와 그와 동시에 가네이에에의 기대도 무너지게 되는 경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蛤日記形成論』笠間書院、pp.326-348.

4) 三田村雅子(1981) 『蜻蛉日記の物語』『一冊の講座・蜻蛉日記』有精堂、pp.208-209.

5) 原田芳起(1955) 『『蜻蛉日記』初瀬詣での条について』『国語と国文学』、至文堂(上村悦子(1986) 『蜻蛉日記解釈大成・第2巻』明治書院、pp.566-570 재인용)、小嶋菜温子(2006) 『『蜻蛉日記』初瀬詣での「鯉」と「雉」-〈産む性〉に賭ける旅』『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第51巻8号、学灯社、pp.32-40.

6) 鈴木日出男(1990) 『『蜻蛉日記』の物語での自然』『古代和歌史論』東京大学出版会、pp.805-819、宮田京子(1990) 『『かげろふ日記』の自然描写と物語で一視覚・聴覚の視点から』『中古文学』46号、中古文学会、pp.12-21.

## 2. 하쓰세의 종교적 의미

### 2.1 원시신앙으로서의 하쓰세

미치쓰나노하하는 두 번에 걸쳐 하쓰세참배를 한다. 일기 상권 말미 안나(安和) 원년 7월에 떠난 하쓰세참배는 「몇 년 동안 바라던 숙원(年ごろ願あるを)」<sup>7)</sup>을 이루기 위해서라 기술하고 있는데, 하쓰세참배를 떠나기 전 가네이에는 궁중의 대상회(大嘗會)가 끝나면 같이 가자고 하지만 그녀는 혼자 몰래 하쓰세로 떠난다. 왜냐하면 그 행사에서 가네이의 다른 처인 도키히메(時姫)의 장녀 초시(超子)가 궁중 대리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따라서 '몇 년 동안 바라던 숙원'은 아마도 미치쓰나(道綱) 하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상심하여 여자아이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것으로 짐작된다. 하쓰세참배 이전에 가모(賀茂), 이나리신사(稻荷神社)를 방문해 노래를 봉납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sup>8)</sup> 우선 하쓰세 참배의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곳을 나와서 계속 가자니, 이렇다하게 볼 만한 것은 없는 듯했지만 ①산은 꽤 깊은 듯 보였다. ②그래서인지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무척이나 정취 있게 들려왔다. 그 유명한 두 그루의 삼나무도 하늘 높이 솟아 옛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서 있었고 나뭇잎은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물은 자갈 사이로 솟구치듯 흘러간다. 저녁 햇살이 비치는 풍경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上·p.197, 밑줄 필자)

하쓰세는 『겐지이야기』에도 “하쓰세는 일본에서도 영험하기로 유명해서 중국에까지 알려져 있다.”<sup>9)</sup>고 기술되어 있을 정도로 예로부

7) 松村誠一外校注・訳(1973) 『蜻蛉日記』小学館、p.194. 이하 『蜻蛉日記』 인용은 이에 의함.

8) 道綱母는 『蜻蛉日記』上卷 康保三年 稻荷, 賀茂神社에 和歌를 봉납한다.

9) 「仏の御なかには、初瀬なむ日の本のうちには、あらたなるしるしあらはしたまふ

터 헤이안 여성들에게 참배지로서 인기가 높았다. 하쓰세가 관음신 양지로 이름이 높았던 이유는 하쓰세산과 강이 종교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미치쓰나노하하가 묘사한 하쓰세의 경관의 특징은 ①산이 깊고, ②강물이 정취 있게 흐르는 곳이라는 점이다. 그녀의 묘사대로 하쓰세는 예로부터 산악신앙과 물의 성지로 추앙받던 곳이다. 『만요슈(万葉集)』에 ‘움폭 파인’ 하쓰세에 대한 노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sup>10)</sup> 『일본서기(日本書紀)』에도 유랴쿠천황(雄略天皇)이 하쓰세 들판을 유람하며 산과 들의 경치에 깊이 감동하여 읊은 노래가 나온다.

움폭 파인 하쓰세산은 우뚝 솟은 산세가 아름다운 산이로다  
산기슭이 넓게 드리운 아름다운 산이로다 움폭 파인 하쓰세산  
은 정말로 수려하고 수려하도다

こもりくの 泊瀬の山は 出て立ちの よろしき山 走り出  
の よろしき山の こもりくの 泊瀬の山は あやにうら麗し  
あやにうら麗し(『日本書紀②』)<sup>11)</sup>

유랴쿠천황은 이 하쓰세에 도읍까지 세우는데, 하쓰세가 예로부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던 것은 움폭 파인 모습이 모태와 비슷하여 생명력을 가진 곳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예로부터 낙원이나 성소는 석실이나 동굴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이는 원초적 돌이나 동굴, 산악이 지모신 숭배라고 하는 배경 하에 출현했기 때문이다.<sup>12)</sup>

또 이러한 산악 숭배사상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데, 왜냐

と、もろこしにだに聞えあむなり(阿部秋生外校注・訳(1972)『源氏物語・三』小学館、p.98)

10) 「こもりくの泊瀬の山の山の際(ま)にいさよふ雲は妹(いも)にかもあらむ(万葉集・428)」「狂言かおよづれ言かこもりくの泊瀬の山に廬りせりといふ(万葉集、1408) 이하 『万葉集』 본문 인용은 小嶋憲之外校註・訳(1971~1975) 日本古典文学全集 『万葉集一~四』小学館에 의함

11) 小嶋憲之外校註・訳(199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4 『日本書紀②』小学館、p.167.

12) 이성구(2012) 「중국의 성소(聖所)와 여성원리」 『東洋史学研究』 東洋史学会、p.16.

하면 물은 산기슭, 즉 산 골짜기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다음 『산해경(山海經)』의 기술을 보면 산과 계곡, 물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차삼경」의 첫머리는 천우산이란 곳인데, 기슭에 물이 많아 올라갈 수가 없다.

南次三經之首，曰天虞之山，其下多水，不可以上

다시 동쪽으로 580리를 가면 남우산이라는 곳인데, 산 위에서는 금과 옥이 많이 나고 기슭에는 물이 많다. 이곳에 물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있는데, 여름이면 나오고 겨울에는 닫힌다.

又東五百八十里，曰南禺之山，其上多金玉，其下多水。有穴焉，水出輒入，夏乃出，冬乃閉 (『山海經』)<sup>13)</sup>

즉, 산은 물을 담는 용기(容器)이고 이는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위나 동굴을 매개로 대지의 풍요성과 직결되는 성소였던 하쓰세나 이시아마는 도시인들이 자연의 생명력을 흡수하기 위한 절호의 장소였던 것이다.<sup>14)</sup> 모체와 비슷한 지형의 수원지대(水源池帶)를 가진 하쓰세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신비성 때문에 성소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쓰세가 물의 신성성으로 인해 이세신궁(伊勢神宮)에 가기 위한 불제를 하는 제궁(齋宮)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사실도 다음의 『일본서기』의 기술에서 알 수 있다.

4월 여름 명진 기사(14일)에 오쿠 공주를 아마테라스대신궁으로 보내 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하쓰세 제궁에 살도록 했다. 여기에서는 우선 몸을 정갈하게 수행하고 점차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장소였다.

夏四月の丙辰の朔にして己巳に、大来皇女を天照大神宮に遣侍めむと欲し、泊瀬齋宮に居らしむ。是は先づ身を潔めて、稍

13) 정재서 역주(1985) 『山海經』 민음사, p.64, p.68.

14) 中村生雄(1988) 「物語と巡礼—その宗教意識の相違」 『宗教研究』61-4, 宗教研究会, p.238.

に神に近づく所なり。

(『日本書紀③』天武二年四月)<sup>15)</sup>

당시 오구 공주를 신녀(齋宮)로 아마테라스대신궁(天照大神宮)에 보내기 전에 하쓰세 제궁에서 결제(潔齋)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엔기시킴(延喜式)』 제궁 규정에 의하면 신녀로 정해진 후에 하쓰세에서 이듬해 7월까지, 그리고 노노미야(野宮)에서 다음 해 8월까지 결제를 하고 9월 상순에 이세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신녀로 정해지면 1년 이상 하쓰세에서 결제를 하고 신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심신을 정화시키는 것이다.<sup>16)</sup> 이를 통해 하쓰세가 고대로부터 궁중에서 지정한 정진 결제를 위한 신성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자궁 모양의 하쓰세산의 모성적 요소와 더불어 웅장한 산이 지니는 풍부한 수원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정화능력,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하쓰세강의 풍부한 수량에 대해서는 『만요슈』에도 많은 노래들이 읊어져 있다.<sup>17)</sup>

물이 가지는 정화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신화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엘리야데는 물이 단순히 정화작용만을 하는 것이 아닌 통과제의에 의한 재생 작용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과의 접촉은 항상 재생을 함축한다. 한편으로는 형태의 해체에는 '새로운 탄생'이 수반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물에 잠기는 것은 생과 장소의 잠재력을 풍부하게 하고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물은 통과제의에 의해서 "새로운 탄생"을 부여하며, 주술적 의례에 의해서 치유하며, 장례에 의해서 사후의 재생을 보장한다. 짝으로 풍부한 물은 대지와 동물과 여성을 풍요롭게 한다. 모든 잠재성의 집적소이며, 매우 유동적이고 만물생성의 받침인 물은 달과 비교되거나 직접 달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달의 리듬과 물의 리듬은 똑같은 모든 형태의 주기적 출몰을 지배하며 만

15) 小嶋憲之外校注・訳(1998)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4 『日本書紀③』小学館、p.351.

16) 小嶋憲之外校注・訳(1998) 前掲書、頭注23、pp.351-352.

17) 「岩走り激ち流るる泊瀬川絶ゆることなくまたも来て見む」(万葉集・991) 「泊瀬川早み早瀬をむすび上げて飽かずや妹と問ひし君はも」(万葉集・2706)

물 생성에 순환적 구조를 부여한다. 또한 선사 이래로 물-달-여성의 유형은 풍요한 인간-우주적 순환 회로로서 인식되었다.<sup>18)</sup>

물에는 치유의 기능과 재생의 기능이 있어 '새로운 탄생'을 가능하게 해 준다. 미치쓰나노하하가 물의 명소인 하쓰세 참배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치유와 새로운 탄생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우차의 방향을 바꾸어 막을 둘러치고 뒤에 탄 사람들만 내리게 하여 우차를 강 쪽을 향하게 했다. 우차의 발을 걷어 올리고 밖을 보니 강에는 어살이 쭉 둘러쳐져 있었다. 오가는 배가 이렇게 많은 풍경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모든 것이 정취 있고 멋있어 보였다. (중략) 여기는 ನೀ에도 연못이고, 이쪽은 이즈미강이네 하고 가리키면서 물새가 떼 지어 모여 있는 것을 보는 것도 마음 깊숙이 남다른 감회를 느끼며 아름답게 생각되었다. 호젓한 여행길이라 무얼 보아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上·195)

바람막이를 만들고 밖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주변이 어두워지자 가마우지 배가 여러 척 횡불을 켜고 강에 하나 가득 노를 저어 가는 광경이 더할 나위 없이 정취가 있었다. (中·291)

남편 가네이에와의 괴로운 혼인생활이 계속되는 도읍에서의 일상에서 벗어나 주변 풍물을 보며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절절한 감회를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연경관을 보고 느끼는 감동을 넘어서 자신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의 회한과 고뇌를 정화하는 눈물인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경관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고뇌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에의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참배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한 힐링과 그를 통한 재생의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다.

## 2.2 경계로서의 우지(宇治), 쓰바이치(樺市)

참배여행이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재충전과 새로운 탄생의 장

18) 마르치아 엘리아데(1993) 『종교사 개론』 까치, p.184.

이 되는 이유는 참배지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호시노 히데키는 순례란 일상생활을 일시적으로 떠나 성지를 향해 거기에서 성스러운 것에 근접해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온다고 하는 종교적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sup>19)</sup> 그런데 이 성스러운 곳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의미한다. 사람들이 신사나 절에 참배하는 것은 성지라고 하는 이계(異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죽음과 재생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여행이란 상징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sup>20)</sup>

그런데 이런 타계(타계)의 여행은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옛날 참배여행은 죽음을 각오한 여행이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다카무레의 시코쿠순례에서도 순례객들은 흰옷을 입고 헨로(遍路)에 나서는데, 이는 죽은 자를 의미하는 행위라고 한다. 즉, 순례자는 타계에 순례함으로써 ‘상징적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참배여행에는 ‘데타치(出立ち)’와 ‘사카무카에(境迎え)’라는 행사를 하는데, ‘데타치’란 여행에 앞서 일가권속, 친척, 지역민들을 초대하여 결별을 위한 연회를 여는 행사이다.<sup>21)</sup> 이는 원래 죽은 사람이 집을 떠나는 출관 직전에 하는 행사로, 일가권속, 친척들이 같은 술의 밥을 먹으면서 이별을 한다는 의미를 지닌 의례이다. 참배를 끝내고 마을에 돌아오면 이번에는 ‘사카무카에’ 행사를 한다. 참배를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면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 입구까지 마중을 나가 그곳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음식을 먹는 의례이다. 참배자에게 이런 의례를 하는 이유는 참배지가 성지이자 이승과는 다른 차원의 죽음의 세계(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쇼진오토시(精進落とし)’ 같은 의례가 필요한 것이다. 이세참배(伊勢参宮)의 경우에는 ‘쇼진오토시’를 위해 신궁 앞에 매춘을 위한 시설이 즐비했다고도 한다. 이는 신이 거주하는 공간(聖, 죽음의 공간)과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俗, 삶의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19) 星野英紀 (1981) 前掲書、p.62.

20) 星野英紀 (1981) 前掲書、p.66.

21) 桜井徳太郎(1987) 『聖地と他界観』名著出版、p.20.

있다. 인간의 거주공간과 타계의 경계선(結界)이 필요한 이유이다.  
『가게로일기』 하쓰세 참배의 경우에도 우지(宇治)와 쓰바이치(樺市)가 결계로 등장한다.

…출발하는 날이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액을 피하려고 호쇼지(法性寺) 근처에 묵기로 하고 이튿날 새벽이 되기 전에 출발해서 오시(午時)경에 우지(宇治)에 있는 별장에 도착했다. (중략) 날이 밝자 이즈미강을 건너 우차를 타고 가노라니 도중에 싸리 울타리로 둘러싸인 집들을 나왔다. ‘가모이야기에 나오는 집은 어느 집일까?’ 생각하며 가자니 정말이지 운치가 있었다. 오늘도 절 같이 생긴 곳에 묵고 다음날은 쓰바이치(樺市)라는 곳에 묵었다. (중략) 우지강 가까이에 이르자 안개가 지나온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방에 깔려 있어 몹시 불안했다.  
(上・pp.194~199)

가까스로 쓰바이치에 도착했다. 언제나처럼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출발할 때는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 …불제 사당에 이르렀는데 비가 그쳤는지도 모르겠고, 강물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 비가 억수같이 오는구나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다. 법당에 올라갈 때는 몸이 좋지 않아 괴로웠다. 절실한 소원도 많았는데, 몸이 힘들어서 의식도 몽롱해져서인지 아무 것도 빌지 못하고 있는 동안 날이 밝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비가 아직 계속 퍼부어서 어젯밤에 겪은 일도 있고 해서 그대로 미적미적 출발을 낮으로 미루었다. (중략) 우지 근처에서 배에서 뱃 우차로 갈아탔다. 아버지 집은 방위가 안 좋다 하여 우지에 묵었다.  
(中・pp.292~294)

쓰바이치는 『마쿠라노소시(枕草子)』에 “시장으로 유명한 것은 타츠노이치. 쓰바이치는 야마토에 여럿 있는 시장 중에 하쓰세에 참배하는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묵기 때문에 관음의 영험이 있는 것인가, 특별한 느낌이 든다.”<sup>22)</sup>라 적혀 있어 하쓰세 참배에서 받드

22) 「市はたつの市。つば市は、やまとあまたあるなかに、長谷寺に詣づる人の、かならずそこにとどまりたれば、観音の御縁あるにや、心ことなり」(松尾聡外校注・訳(1974) 日本古典文学全集11 『枕草子』小学館、p.82)

시 묵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쓰바이치는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서 쓰바키이치(海石榴市)라고도 하며 산 주변길이 큰 교차로이고, 야마토강 근처여서 수륙교통의 요충지였다.<sup>23)</sup> 또한 미와산(三輪山) 남서쪽 사쿠라이시(桜井市)에 있어 나라(平城京) 뒷길, 동서대로, 산 주변길이 모여있는 하쓰세강 취락으로, 예가시(餌香市), 가루시(軽市)와 더불어 고대 일본 3대 시장의 하나로 꼽혔던 곳이기도 하다.<sup>24)</sup>

시장은 원래 다소 비일상적 공간으로 간주되어 왔다. 기타미 도시오(北見俊夫)는 고대 시장명에 동백이나 뽕나무 이름에 유래한 것이 보이는 것은 이들 나무에 신이 강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5)</sup> 또 아마노 요시히코(網野喜彦)는 절이나 신사의 문 앞에 시장이 열리는 것은 '낙시(樂市)'라고 하여 이곳이 신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연(無縁)' '무주(無主)'의 공간이라고 하고 있다.<sup>26)</sup> 중세에 '낙시'는 '가게코미데라(駆込み寺)'<sup>27)</sup>나 '구가이(公界)'<sup>28)</sup>와 함께 막부 관료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성역(asyl)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쓰바이치는 일상의 공간과는 다른 '무연'으로서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시장과 관련된 설화가 명계(冥界) 체험담이나 불교 영험담(靈驗譚)이 많은 것도 이곳이 신과 인간계를 연결해주는 영적인 공간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sup>29)</sup>

우지 역시 속세와 타계의 결계이다. 우지는 기센법사(喜撰法師)의 노래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 “세상을 멀리하다(世を憂し)”와 “宇

23) 国史大辞典編纂委員会(1988) 『国史大辞典』 吉川弘文館、p.798.

24) 秋庭隆(1996) 『日本地名大百科』 小学館、p.749.

25) 北見俊夫(1970) 『市と行商の民俗 - 交通・交易伝承の研究(二) -』、民俗民芸双書(林英男(1999) 『日本民俗大辞典・上』 吉川弘文館、p.99 재인용)

26) 網野喜彦(1996) 『増補無縁・公界・楽』 平凡社、p.136.

27) '縁切寺'라고도 함. 江戸時代に 아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 숨어들었던 비구니 절. 일정 기간 그곳에 있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林英男(1999) 『日本民俗大辞典・上』 吉川弘文館、p.219)

28) '公界寺' '公界所'로 사용되어 戦国大名의 권력, 사적 지배로부터 자립, 자치, 자유를 표현하는 말(網野喜彦(1987) 『「公界」と公界寺』 『聖地と世界観』 名著出版、p.63)

29) 金秀美(2004) 『玉鬘物語における「九条」と「椿市」-〈市〉を巡る説話との関わりから』 『中古文学』73号、中古文学会、pp.39-41.

治(うじ)”를 가케고토바(掛詞)로 하여 우지가 속세간에서 멀리 떨어진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sup>30)</sup> 또한 『겐지이야기』의 우키후네(浮舟) 이야기로 우지의 황량하고 쓸쓸한 이미지는 더욱 명확하게 되고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겐지이야기』에 묘사된 우지강의 거친 물살에 대한 두려움(この水の音の恐ろしげに響きて行くを)이나 뱃사공 손자가 물에 빠져 죽는 등의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는 우지가 죽음의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하녀들이 “예로부터 우지강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다(すべていたづらになる人多かる水にはべり)”는 이야기를 나누며 불안해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머니인 츠조노기미(中将の君)의 질책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우키후네의 모습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역자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오야마모리(大山守) 왕자와 오사자키(大鷲鷲) 왕자의 이야기를 들고 있다.<sup>31)</sup> 이 이야기는 황태자로 지명 받지 못한 오야마모리왕자가 자신의 동생이자 황태자인 우지노와키이라츠코(宇遅能若紀郎子)를 죽이려다 계략이 발각되어 오히려 자신이 물에 빠져 살해당한다는 이야기다. 그 후 자신의 이복형을 죽인 와키이라츠코는 자신의 형인 오사자키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3년 동안 노력을 했으나 형이 받아들이지 않자 자살을 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지강을 둘러싼 비극적 죽음과 왕위를 둘러싼 이복형제들끼리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 그 후에 이어지는 왕위 계승을 양보하려는 미담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는 와키이라츠코 태자의 비극을 보여주고, 이러한 요소들은 우지강과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연결 짓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라사키시키키부가 우키후네 이야기의 무대를 우지로 한 것도 두 남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우키후네의 심정과 자신의 형을 죽이고 지킨 왕위를 다른 형에게 양보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지강에 몸을 던진 태자의 고뇌가 서로 닮아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와키이라츠코 태자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30) 「わが庵は都の辰巳しかぞ住む/世をうち山と人はいふなり」(小沢正夫校注・訳(1971)『古今和歌集』小学館、p.365)

31) 阿部秋生外校注・訳(1976)『源氏物語・六』頭注23、小学館、p.159.

『일본서기』에 의하면 동생의 죽음을 슬퍼한 오사자키 왕자가 슬픔에 젖어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내 동생 왕자여”라고 세 번 부르자 태자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부활한 태자는 오사자키 왕자에게 여동생 야타 공주를 진상한다는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sup>32)</sup> 다시 말해 우지는 죽음을 부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재생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세찬 물살로 인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우지강, 그리고 그 물의 신성성으로 인해 재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우지가 이승과는 다른 신비한 세계, 이향(異郷)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유령이 출현하거나 여러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로 인식되었던 우지교(宇治橋)나 극락세계로 통하는 이상향으로서 후지와라노 요리미츠(藤原頼通)에 의해 우지에 건설된 보도인(平等院)의 존재도 우지가 당시 신성한 공간으로 역할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지교는 신령과 생명이 오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다리신(橋神)의 성격이 출산, 육아와 관련된 민속을 배양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33)</sup>

이상으로 쓰바이치와 우지는 신성한 관음성지로서의 하쓰세에 참배하기 위한 ‘중간 체류지’로서의 결계, 성소로, 참배자가 성화(聖化)를 위해 몸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 머무는 신성한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 ‘오모이가에루(思ひかえる)’ 노래의 의미

『가게로일기』에는 하쓰세참배, 가라사키불제, 이시아마참배, 나루타키침거, 또 한 차례의 하쓰세참배와 같은 참배여행의 기술이 있다. 미치쓰나노하하는 여러 차례의 참배여행을 통해서 힘든 일상을 벗어나고자 노력했고, 절에 참배하는 동안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계

32) 小島憲之外校注・訳(199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4 『日本書紀②』小学館、p.27.

33) 林英男(2000) 『日本民俗大辞典・下』吉川弘文館、p.355. 아이에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 등의 예

기를 갖는다. 사쿠라이 도쿠타로(桜井徳太郎)는 참배여행은 사람들이 성스러운 타계에 몸을 던짐으로써 약해진 생명력을 부활시키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활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연의 섭리를 배우는 것이라고 있다.<sup>34)</sup> 비록 여행에서 돌아온 일상은 여전히 가네이에의 불성실에 우울해하는 나날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참배여행을 통해서 약해진 생명력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하쓰세 참배를 마치고 돌아온 미치쓰나노하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불성실한 남편의 태도였다. 더구나 출가를 각오하고 감행했던 나루타키칩거에서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돌아온 터라 그녀의 실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나루타키칩거에서 돌아온 이후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떠났던 여행이 두 번째 하쓰세 참배였고, 그 여행에서 그녀는 첫 번째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경관에 감동을 하거나 불제를 하며 마음을 정화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여행을 마지막으로 미치쓰나노하하는 더 이상 참배여행을 떠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가네이에와의 결혼생활도 거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녀가 이런 심경변화를 일으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일기 중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마가에루(あまがへる)’와 관련된 노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루타키칩거와 두 번째 하쓰세참배 이후에도 가네이에의 발길은 들쭉날쭉했고, 어느 날 그가 오기로 약속하고 오지 않자 미치쓰나노하하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보낸다.

한나지 칩거 이후 ‘참개구리’라는 별명이 붙어서 이런 노래를 보냈다. 우리 집만 아니면 방위도 막히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 하니 불쾌해서.

개구리 살리는 질경이 신 가호도 없나 보네요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는 당신 보니

山籠りの後は、「あまがへる」といふ名をつけられたりければ、かくものしたり。こなたざまならでは、方も、など、物しくて、おほばこの神のたすけやなかりけむ契しことを思ひかへるは

(中・pp.299~300)

34) 桜井徳太郎(1987) 前掲書、p.23.

나루타키 칩거 이후 그녀는 '청개구리(雨蛙)'라는 별명을 얻는다. 출가를 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으로 한나지(般若寺)에 칩거했지만 결국 무리하게 끌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두고 남편 가네이에가 '돌아온 비구니(尼帰る)'에 빗대 이런 별명을 붙인 것이다. 가네이에는 그 전에도 나루타키에서 돌아온 미치쓰나노하하에게 하녀가 집에 있는 화초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듣고는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집을 나가 부처님의 구제를 바라던 사람한테 패랭이꽃을 잘 키웠다거나 오죽을 바로 세웠다거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오"라고 놀리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가네이에에는 아내 미치쓰나노하하의 출가 결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평소에도 비아냥 거렸던 것이다. 아내의 마음 속 깊이 자리한 고통을 이해하지도,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가네이에의 이러한 태도는 미치쓰나노하하에게 점점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절에 그대로 있었다라면 이런 비참한 일은 안 겪어도 될 텐데 (山ならましかば、かく胸塞がる目を見ましやと)..."하는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하쓰세 참배는 그녀의 이런 의지할 데 없는 마음을 위로하고자 나선 여행이었고, 그럼에도 참배여행으로 더 이상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제 가네이에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달아버리고 말게 된다. '아마가에루'와 관련된 노래에서 그런 작가의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가에루'와 비슷한 표현들은 『도노미네소장 이야기(多武峰少将物語)』와 『사고로모(狭衣物語)』에도 보인다. 『사고로모 이야기』에서는 사고로모가 겐지노미야(源氏宮)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괴로워하다 출가를 하려고 하지만 겐지노미야에 대한 미련과 아버지 호리카와 천황(堀川帝)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을 '아마가에리 대장(山歸りの大將)'<sup>35)</sup>이라 탄식하는데, 그 외에도 사고로모 대장이 출가하지 못한 자신을 '아마가에루(山がへる)'라 자조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① "어떤 잘못된 정보를 들으셨는지, 전혀 짐작 가는 바가

35) 三谷栄一校注(1965) 日本文学大系『狭衣物語』岩波書店、p.202.

없습니다. 이렇게 화제가 되어 ‘야마가에루’라는 별명도 정착이 되니 참으로 힘듭니다.

「いかなる僻事どもを、聞かせ給にか、更に思ふ給へかけ候はぬ事を、かくもて騒がれて、「山がへる」などいふ名も、とまり候はば、はしたなきやうにや思なりはべらん」と、…(『狭衣物語』卷四、p.350)

② 저는 전생의 정진이 부족했는지 훌훌 털고 출가할 수 없는 것을, 아가씨께서는 그렇게 깊이 고민하신 듯도 보이지 않는데 오로지 정진하는 데 매진하시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야마가에루’라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들게 되었습니다.

前の世の勤めからにや、すがやかにえ人の思ひ立たざるすぢを。何ばかり深くしもものし給こと物し給がざりけんものを、限りなく行ひ勤め給へるさまこそ、羨ましげに侍るめれ。「山がへる」とかや、いと聞きにくき名をさへとどめ侍ぬるぞ。(『狭衣物語』卷四、pp.357~358)

첫 번째 인용문은 사고로모가 출가한다는 소문을 들은 사가인(嵯峨院)이 걱정하자 그에 대해 답한 말이다. 사고로모 대장이 몇 번이나 출가를 하고자 결심했지만 주위의 만류와 본인의 주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미 ‘야마가에루’라는 별명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착하게 된 것을 한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겐지노미야와 재회했을 때의 대화로, 이미 출가를 감행한 겐지노미야에 비해 자신은 출가를 결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부끄러워하는 내용으로, 출가를 하지 못하고 속세로 돌아왔다는 뜻의 ‘야마가에루’라는 별명이 “매우 불명예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다. 당시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출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속세로 돌아오는 경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노미네소장 이야기(多武峯少将物語)』에서는 평소 출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하는 다카미쓰(高光)에게 아내가 ‘호시가에루(法師かへる)’라 놀리는 장면이 나온다. 다카미쓰는 평소 법사가 되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만류로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자 숙원을 이루고자 어느 날 아내 아이미야(愛宮)에게 출가할 뜻을 밝힌다.

지금은 단지 출가하는 일 만이 마음에 있어 외출할 때마다 “법사가 되기 위해 산에 가려 하오”하고 말씀하셔서, 아이미야께서는 “또 그 소리시네”하고 농담으로 흘려들었다. 어느 날 “오늘은 정말 산에 들어가려 하네”하고 말씀하시자 아내는 “언제나처럼 밤이 되면 돌아오실 테죠. 그걸 바로 ‘호시가에루’라 하는 거예요” 하고 웃으시자,...

ただこの事のみ御心にいそがれ給ひつつ、出で給ふたびごとには、女君に「法師になりて山へまかるぞ」ときこえ給ひければ、「例のこと」と、たはふれにおぼしてなむ、きこえ給ひける。「まことにこのたびは」ときこえ給ひければ、「例のよさはかへり給へらむをこそは法師かへるとは見め」ときこえ笑ひ給ひければ、… (『多武峯少将物語』)<sup>36)</sup>

다카미쓰의 아내 아이미야도 남편의 출가 의지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의 출가의 결심을 ‘호시가에루’라 놀리고 있다. 아사야마 노부히로(朝山信弥)는 이 ‘호시가에루’란 표현이 『가게로일기』에서 온 것으로, 이를 근거로 『도노미네소장 이야기』가 『가게로일기』보다 나중에 성립되었다고 하고 있다.<sup>37)</sup> 『사고로모 이야기』에 나오는 ‘야마가에루’란 표현 역시 『가게로일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sup>38)</sup> 『도노미네소장 이야기』의 ‘호시가에루’나 『사고로모 이야기』의 ‘야마가에루’의 예에서 당시 출가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조롱당하고 비판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출가에 대한 시각도, 또 출가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돌아오는 경우 남성에게 비해 훨씬 더 비난을 받았던 것 같다. 『겐지이야기』의 ‘비 오는 날의 품평회’에서 남자들이 경솔하게 출가를 감행한 여성은 감정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36) 玉井幸助(1960) 『多武峯少将物語:本文批判と解釈』 塙書店、p.50.

37) 朝山信弥(1936) 「多武峯少将物語の成立を中心として」 京都大学国語国文学会 『国語・国文』第六卷・第二号、星野書店、pp.34-58.

38) 三谷栄一校注(1965) 前掲書 補注187、p.490.

자기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남자를 두고 비록 당장에는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도 남자의 마음도 모르는 채 도망가 숨어버려 남자를 당황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이에 평생 후회할(완전히 부부 관계가 끝나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 (중략) 전생의 인연이 깊어 비구니가 되기 전에 찾아서 데리고 돌아오더라도 그때의 기억이 나중까지 원망으로 남지 않겠는가. 싫든 좋든 함께 하며 어떤 경우라도 참고 사는 부부가 전생으로부터의 인연이 깊고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상대도 응어리가 남아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겠는가.

心ざし深からん男をおきて、見る目の前につらきことありとも、人の心を見知らぬやうに逃げ隠れて、人をまどはし心を見んとするほどに、永き世のもの思ひになる、いとあぢきなきことなり。(中略)絶えぬ宿世浅からで、尼にもなきて尋ね取りたらんも、やがてその思ひ出うらめしきふしあらざらんや。あしくもよくも、あひ添ひて、とあらむをりもかからんきぢみをも見過ぐしたらん仲こそ、契り深くあはれならめ、我も人もうしろめたく心おかれじやは。(『源氏物語・一』帚木)<sup>39)</sup>

이를 보면 마치 미치쓰나노하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 남편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여 성급하게 비구니가 되려고 하는 여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려 깊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고, 또 그런 여성은 찾아 데리고 오더라도 결국 부부 사이에 응어리가 남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단한 결심을 했다고 칭찬도 하고 동정도 하지만 후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는 경솔하고 감정적이라고 비난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남편의 여자 문제 때문에 출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출가를 결심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역시 부부사이에 문제가 된다고 비판한다.

다시 '아마가에루' 노래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이 노래는 저녁에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손님이 왔다는 핑계로 가네이에게 오지 않자 자신을 '아마가에루'라 조롱하는 데 대해 당신도 '오모이가에루

39) 阿部秋生外校註・訳(1970) 『源氏物語・一』小学館、pp.142-143.

(변심의 달인)'이 아니냐는 비난의 뜻을 담아 되받아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죽은 개구리에 질경이 잎을 덮어주면 살아난다고 하는데, 나에게서 그런 신의 가호도 없었나 보다는 한탄을 담고 있다. 결국 참배여행을 통해 가상의 죽음을 경험하고 재생의 에너지를 얻어 돌아오는 생활이 계속되어도 당신의 애정이 없는 이 세상에 나에게 '재생'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미치쓰나노하하가 이 노래를 계기로 더 이상 참배여행도 떠나지 않고, 또 더 이상 남편 가네이에에 거는 기대를 접은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하야미 다스쿠(速水侑)는 일본의 관음신앙이 10세기에 들어 크게 변화한다고 지적한다.<sup>40)</sup> 10세기의 일본은 대륙문화에서 벗어나 일본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기 시작한 시기이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율령국가의 체제가 확고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 때 관음신앙은 그 이전까지의 주술적, 현세 이익적 신앙과는 달리 관음보살의 자비에 기대는 지옥사상, 육도사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헤이안시대 이전의 생명력 넘치는 주술적 원시신앙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게로일기』 참배여행의 기술들을 보면 아직 여전히 고대 주술적 원시신앙의 상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쓰세는 산세가 움푹 들어간 모습에서 모태를 상징하고 물의 흐름이 세차서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신비성을 지닌 관음신앙의 성소이다. 또한 참배여행은 절이나 신사라고 하는 이계를 체험하는 것으로, 이는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고, 속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데타치'와 '사카무카에'의 과정이 필요하며, 하쓰세 참배의 경우와 쓰바이치와 우지가 그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절이나 신사가 성스러운 공간인 것처럼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쓰바이치나 우지 역시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무연'의 공간임도

40) 速水侑(1970) 『観音信仰』 塙書房、p.177.

고찰하였다. 결국 『가게로일기』에서의 참배여행이란 성스러운 공간에서 일시적인 죽음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재생의 에너지를 얻어 돌아오는 행위였던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하쓰세 참배 이후에 미치쓰나노하하는 더 이상 참배여행을 떠나지 않는다. 또한 그와 동시에 부부관계도 절연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가게로일기』중권 마지막에 실린 ‘오모이기에 루’ 노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노래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남편에 대한 절망을 담고 있으며, 질경이신의 가호를 받지 못하고 죽어버린 개구리는 더 이상 자신에게 재생의 기회는 없다는 사실상의 죽음에 대한 선언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게로일기』가 중권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은 미치쓰나노하하의 바로 이러한 심경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텍스트

- 小嶋憲之外校注・訳(1971~1975) 日本古典文学全集『万葉集一~四』小学館  
 小嶋憲之外校注・訳(1996、1998)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4『日本書紀②③』小学館  
 松村誠一外校注・訳(1973) 『蜻蛉日記』小学館  
 阿部秋生外校注・訳(1970、1972、1976) 『源氏物語・一、三、六』小学館  
 小沢正夫校注・訳(1971) 『古今和歌集』小学館  
 三谷栄一校注(1965) 日本文学大系『狭衣物語』岩波書店

## 참고문헌

- 마르치아 엘리아데(1993) 『종교사 개론』 까치, p.184, p.243.  
 이성구(2012) 「중국의 성소(聖所)와 여성원리」 『東洋史学研究』 東洋史学会, p.16.  
 정재서 역주(1985) 『山海經』 민음사, p.64, p.68.  
 秋庭隆(1996) 『日本地名大百科』 小学館、p.749.  
 朝山信弥(1936) 「多武峯少将物語の成立を中心として」 京都大学国語国文学会 『国語・国文』第六卷・第二号、星野書店、pp.34-58.  
 網野喜彦(1996) 『増補無縁・公界・楽』 平凡社、p.136.  
 \_\_\_\_\_(1987) 「『公界』と公界寺」 『聖地と他界観』 名著出版、p.63.  
 上村悦子(1972) 『蜻蛉日記の研究』 明治書院、pp.120-143.  
 \_\_\_\_\_(1986) 『蜻蛉日記解釈大成・第2巻』 明治書院、pp.566-570.

- 北見俊夫(1970)『市と行商の民俗 - 交通・交易伝承の研究(二) -』民俗民芸双書(林英男(1999)『日本民俗大辞典・上』吉川弘文館、p.99. 제인용)
- 小嶋菜温子(2006)『『蜻蛉日記』初瀬詣での「鯉」と「雉」-〈産む性〉に賭ける旅』『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第51巻8号、学灯社、pp.32-40.
- 国史大辞典編纂委員会(1988)『国史大辞典』吉川弘文館、p.798.
- 桜井徳太郎(1987)『聖地と他界観』名著出版、p.20、p.23.
- 鈴木日出男(1990)『『蜻蛉日記』の物語での自然』『古代和歌史論』東京大学出版会、pp.805-819.
- 玉井幸助(1960)『多武峯少将物語；本文批判と解釈』塙書店、p.50.
- 中村生雄(1988)『物語でと巡礼 - その宗教意識の相違』『宗教研究』61-4、宗教研究会、p.238.
- 林英男(1999)『日本民俗大辞典・上』吉川弘文館、p.99、p.219.
- \_\_\_\_\_ (2000)『日本民俗大辞典・下』吉川弘文館、p.355.
- 速水侑(1970)『観音信仰』塙書房、p.177.
- 星野英紀(1981)『巡礼一聖と俗の現象学』講談社、p.62、p.66.
- 松尾聡外校注(1974)日本古典文学全集11『枕草子』小学館、p.12、p.82.
- 三田村雅子(1981)『蜻蛉日記の物語』『一冊の講座・蜻蛉日記』有精堂、pp.208-209.
- 宮田京子(1990)『『かげろふ日記』の自然描写と物語で - 視覚・聴覚の視点から』『中古文学』46号、中古文学会、pp.12-21.
- 守屋省吾(1975)『蜻蛉日記形成論』笠間書院、pp.326-348.
- 金秀美(2004)『玉鬘物語における「九条」と「椿市」-〈市〉を巡る説話との関わりから』『中古文学』73号、中古文学会、pp.39-41.

성명(한글) : 허영은  
(한자) : 許榮恩  
(영문) : Huh, Young-Eun  
논문영어제목 : The Meaning of Hatsuse Worship  
- Focused on *Kagero* Diary -  
소속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E-mail : huheun@daegu.ac.kr

투고일 : 2014년 1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2월 4일